

“역사 바로세우는 일”...여순사건 특별법 발의 ‘환영’

여수·순천시 “진상규명·명예회복 기대...유족 아픔 치유되길” 유족회 “자식된 도리 다할 수 있게”...사회단체 “시대적 과제”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28일 발의되자 여수시와 순천시, 유족회, 사회단체 등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날 “특별법 발의는 여순사건으로 아팠던 유족들에게는 지난 세월의 아픔을 환하게 비추고 촉발과 같은 희망”이라면서 “특별법 제정으로 여순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규명돼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어 “여순사건 당시 유족자로 태어난 분들이 벌써 70세를 넘었고, 당시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도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순천시장은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여수10·19사건 유가족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및 시민 단체 등 모든 분의 노력이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공동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 역사의 아픔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순천시는 올해 여순사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채용해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의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도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데 대해 “28만 순천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70여년간 가슴에 슬픔을 담고 살아왔던 여순항쟁유족연합회도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유족연합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표할 때까지 의원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식된 도리 다하고 눈 감을 수 있기만을 고대한다”는 72년이 지났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기를

를 염원하고 또 염원한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여순사건을 연구해온 여수지역사회연구소도 논평을 내고 법안 통과를 기대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70여년간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남북분단의 마지막 남은 시대적 과제로서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을 담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 석곡IC~겸면 23.1km 구간 도로시설 개량공사 본격화



곡성지역민들의 숙원이었던 석곡나들목(IC)~겸면 도로시설 개량공사가 본격화된다.

29일 곡성군에 따르면 국도 27호선 석곡IC~겸면 23.1km 구간은 급커브 등 도로 구조 탓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도로시설의 개선이 절실했다.

곡성군은 지난 2014년부터 국도 및 국지도 5개년 계획 사업 대상으로 해당 구간의 시설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국회·기획재정부·국토부 등을 수시 방문해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요구, 지난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 이 사업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국비 1460억원이 투입되는 이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도로 개량 사업과 관련해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이 착수되면 편입도지 매입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목포시민 74.1% “세월호 선체 고하도 거치 찬성”

“안전·교육 공간, 기억·추모 공간으로 조성해야”



목포시민 74%가 목포신항에 있는 세월호 선체를 인근의 고하도로 옮겨 거치하는 것에 찬성했다. 사진은 해상에서 바라 본 목포신항의 세월호.

목포시민 74%는 세월호 선체의 목포 고하도 거치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세월호 선체 거치 장소 후보지 논의 중 고하도 신항 배후부지(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인근)가 유력한 장소로 거론됨에 따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했다.

시민·사회단체·유관기관·학생·일반시민 등 1만 3092명(목포인구의 5.8%)이 설문에 참여해 찬성 74.1%, 반대 25.9%로 집계됐다.

세월호 선체 고하도 거치 찬성 이유로는 ‘생명·안전·교육 공간 조성’, ‘새로운 관광자원 활용’, ‘선체 인양 인근 지역’ 순으로 조사됐다.

고하도에 거치 시 역할을 두고 조성해야 할 부

문으로는 ‘안전교육·체험 인프라 확충’과 ‘추모·기억공간으로 조성’, ‘고하도 연계개발’ 등이 꼽혔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세월호 선체 고하도 거치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인 의견을 알게 됐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고하도로 확정될 경우 시설 조성에 시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월호 선체 거치 장소에 1500억원 이상을 투입해 국민 안전교육·체험시설과 전시공간 등을 조성하고 인근은 주변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선체 원형을 복원해 물 위에 띄우는 형태로 전시하고, 선체 일부는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안전에 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시설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설 설치와 운영은 국가가 직접 추진해 목포시의 재정 부담이 없고 대다수 시민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고하도에 안전체험시설과 공원이 조성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 moon@kwangju.co.kr

구글 섬마을 청소년 기자학교 운영 신안군, 고등학생 대상 내일 마감

신안군은 ‘구글(Google)과 함께하는 섬마을 청소년 기자학교’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자학교는 구글 클래스룸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이뤄진다. 섬마을 청소년들은 지정된 플랫폼에 동시 접속해 구글코리아 뉴스랩의 이성규 팀장 펠로우와 함께 실시간으로 비대면·쌍방향 기자 수업을 하게 된다.

섬마을 청소년 기자학교는 ▲구글 검색과 뉴스(만들기) ▲사실확인(팩트 체크)과 뉴스(만들기) ▲구글어스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수업 마지막 시간에는 ▲좋은 기자가 되기 위한 온라인 집담회를 열 계획이다.

제1기 섬마을 청소년 기자학교의 일정은 다음달 5일부터 26일까지이며, 매주 1시간씩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신안군은 도초고, 신안해양과학고, 하의고 등 신안지역 6개 고등학교 학생과 같은 또래의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자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31일까지이다. 신안군은 1기 기자학교의 반응이 좋으면 구글코리아와 협의해 교육 대상의 폭과 기회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군, ‘바다 드림팀’ 힘찬 뱃고동

학계·연구기관·전직 관료 등 16개 분야 전문가 한자리에



해양·수산·관광 전문가들로 구성된 영광 바다드림팀이 지난 28일 첫 회의를 가졌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은 지난 28일 별관 회의실에서 해양·수산·관광·에너지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바다드림팀’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영광군은 변화하는 해양수산행정의 적기 대응과 미래 비전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할 ‘바다드림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당초 3월에 발대식을 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기를 늦추다가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 발대식은 코로나19에서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개최할 예정이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바다드림팀은 해양수산 관련 전직 관료 출신으로 구성된 자문그룹과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부 정책을 접목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이들은 상호 교류협력,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건립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5명 이내로 구성된 분과위에서는 칠산바다관광유람선, 불갑천 어도(고기길) 설치, 영광해상풍력 주민수용성 방안 등 16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